고교생 영국 어학연수

여수시 55명 선발…3주간

여수시가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국 어학연수를 실시한다.

여수지역 고등학생과 영어 교사 등 55명은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영국 런던에서 현지 어학연수에 참가한다.

참가 학생들은 지난해 여수시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성적 우수생들로 시는 1인당 400여만원의 연수비 전액을 지원한다. 인솔교사 4명은 현직 영어 교사로 연수에서 경험한 다양한 내용들을 수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계적 교육재단인 '지오스 런던'이 운영하는 이번 연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15분까지 영어수업을, 오후 3시15분부터 6시까지 영국 도서관·박물관 등 현장체험을 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홈스테이를 통해 문화체험 기회도 주어진다.

이번 연수에는 여수여고를 비롯해 부영·중앙여고, 한영·여수·충무·여천·화양·여양고 등 9개교 학생들이 참가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백운산 '약초단지' 조성

광양시 밤 대체작목 재배

광양 백운산에 고소득 청정임산물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광양시는 저가 중국산 수입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밤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올해 5억1천만원을 들여 산채류와 산약채 등 고소득 작물재배단지 47㏊를 조성키로 했다.

국고보조금 60%가 지원되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산채류(고사리, 취나물, 두릅 등), 산약초(산양삼, 창출, 오갈피 등), 산과실(산머루, 모과 등), 야생화(구절초, 벌개미취 등)를 재배할 수 있으며 희망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또는 광양시청 산림과(061)797-3424로 접수하면 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순천 사회복지사協 창립

순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가 24일 오후 2시 YWCA 3층 강당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창립발기인대회를 개최했던 순천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비리접수 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장종애 회장은 "200여명에 달하는 순천지역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보호와 새로운 복지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오동도 자연보존 서둘러야

입장료 폐지따라 관광객 급증…샛길 생성 등 훼손 심각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입장객 증가에 따른 여수 오동도의 자연보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들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오동도에 최근 조각전 등이 열리면서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동백 개화시기인 2월중순 이후부터는 오동도 입장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입장객 증가로 우려되는 환경훼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동도는 이미 수년전부터 탐방객 증가로 인해 숲길 곳곳에 샛길이 생겨나는 등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매년 동백 꽃의 개화량이 감소하고 있고 '잎 갉아먹음' 질병이 발생하는 등 '동백 섬'으로서의 명성을 위협받고 있다.

타 국립공원의 경우 입장객 폐지에 따른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오동도의 경우 지난 1985년부터 지자체인 여수시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여수시는 1999년부터 3개 구간으로 나눠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보존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관리요원이 수시 순찰을 하고 있고, 휴식년제 연장 등을 통해 자원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자연자원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동도는 지난 1968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150만여명이 오동도를 찾았고, 지난해는 157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깨끗한 여수 만들기 여수시가 오는 4월9일부터 실시되는 BIE(국제박람회 사무국)실사에 대비, 22일부터 일주일간 청결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여수시 상수도료 30% 인상

"물가인상 부추기나" 시민들 반발

여수시가 상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30% 가까이 인상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여수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될 상수도 요금을 현행 보다 평균 29.4%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1t당 현재 525.5원에서 692.6원으로, 업무용은 1천91원에서 1천385.2원으로, 영업용은 1천549.7원에서 1천978.8원, 대중탕은 989원에서 1천183원으로 각각 오른다. 5년만에 조정된 여수시의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은 최근 3년 동안 수돗물 생산원가 가운데 원수구입비가 37.3%포인트나 오른데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시는 고지대가 많은 탓에 급수를 위한 정수장 4곳, 가압장 23곳, 배수지 31곳 등 제반시설이 다른 시·군보다 많은 점, 해안지대 수도관의 빠른 부식에 의한 누수율 증가 등을 요금 인상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폭을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여수 시민협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29.4%나 올리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상수도 요금 인상은 순차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송배수관 공사나 누수방지책 등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여수공항에 미니어처 보해 잎새주 홍보라벨

'엑스포 붐' 조성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여수공항은 2층 대합실에 가로 2.7m, 세로 1.8m 크기의 박람회 미니어처(조감도)를 설치하고 천장에는 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대형 현수막(가로, 세로 각각 3m)을 붙이기로 했다.

또 1층 로비 기둥을 활용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공항 입구에 길이 20m 높이 4.5m 크기의 대형 아치를 세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박람회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항내에서 정기적으로 고전음악연주회 등 문화행사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기업인 보해양조도 여수세계박람회 홍보에 나선다.

최근 여수시와 협의를 마친 보해양조는 잎새주 라벨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온 국민의 힘으로'라는 문구와 함께 박람회 마스코트와 심벌을 디자인, 다음달 중순부터 출시에 들어간다.

보해양조는 1차로 2월부터 2개월동안, 2차로 오는 10월부터 2012세계박람회 결정이 확정되는 12월까지 모두 4개월여 동안 홍보 라벨을 붙인 잎새주를 판매할 계획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율촌 현대하이스코 지방세 과세

순천 8 : 2 광양

관할권 비율 최종 확정

관할권을 둘러싸고 순천시와 광양시가 마찰을 빚었던 율촌 현대하이스코 지방세 과세 비율이 8대 2로 확정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자유구역내 율촌 1산단 현대하이스코의 과세 배분 비율을 순천 8, 광양 2로 확정하고 그간 구역청에서 보관 중이던 지방세 총 58억9천만원을 이 비율에 따라 배분키로 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순천과 광양시 입회하에 경계 측량을 마무리한 뒤 하이스코에 대한 관할 면적 비율을 토지 8 대2, 건물 8.07 대1.93으로 배분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47억여원, 광양시는 11억여원을 배분 받게 됐다.

관할권 분쟁은 지난 97년 현대하이스코가 전남도로부터 율촌 제1산단 44만6천283㎡(13만5천평)를 분양받아 냉간 압연제품을 생산할 공장과 부대시설을 건축하자 순천시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광주박물관 여수 안도패총 발굴조사

광주 국립박물관(관장 조현종)이 지난 15일부터 신석기문화 연구에 이정표가 될 여수시 안도 패총에 대한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육지에서 34km 떨어진 안도는 지난 1992년 광주박물관이 실시한 여수시 도서지역 지표조사 때 융기문토기를 비롯한 토기류와 흑요석제 작살 등 다량의 석기류들이 발굴돼 학계에 처음 알려졌다. 특히 흑요석은 주로 백두산이나 한라산 등 화산지대에서 주로 출토되는 희귀한 돌로 해상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돼 당시 문화교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새 얼 굴 /

"세계 해양관광 메카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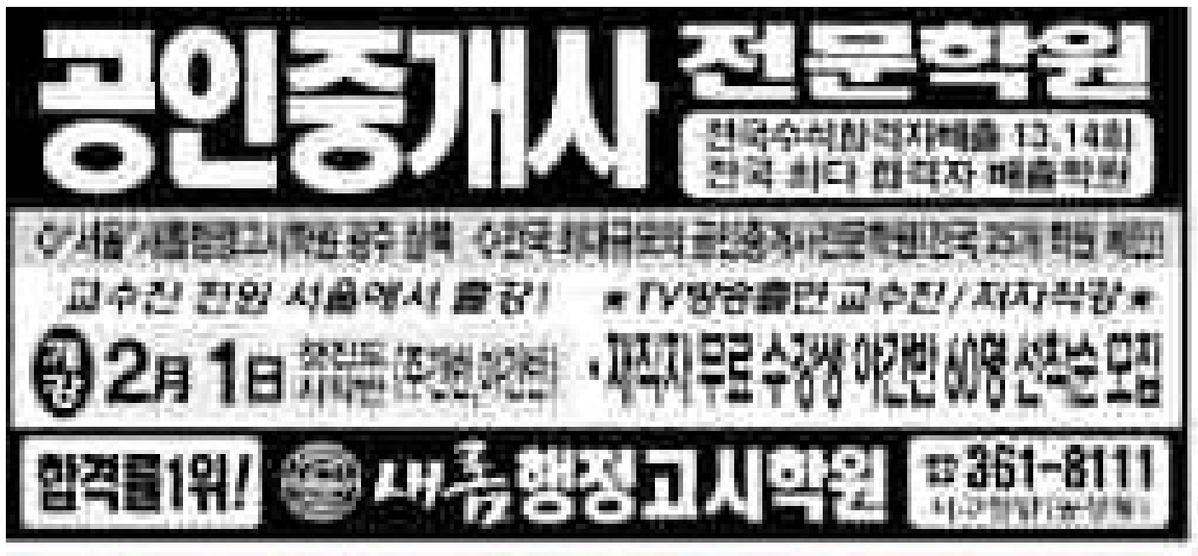
최 오 주 여수부시장

"전남의 핵심도시인 여수에서 일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오주(54) 신임 여수 부시장은 "여수시는 효과적인 발전전략을 통해 세계 속의 해양관광 메카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생각과 추진력을 민·관이 갖춰야만 모두가 염원하는 '큰 여수'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 출신인 최 부시장은 광주고와 육사(31기),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곡성부군수와 강진, 신안, 구례 부군수를 거쳐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미경씨와 2남.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 주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곡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함 평	324-8111	고 창	564-1919
				순 창	653-6155